마야투어
MAYA TOUR
현지의 친구
☎ 02)722-9001
신상의 동불로 불쾌지를 밝혀는 상지손해!

佛教新聞

bulgyo.com

침향은 취운향당에 있습니다
www.cwh.co.kr ☎ 054-933-6371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제 발행

불기 2557년 8월 17일(2013년 / 장기 4346년 불력 7월11일) 대표전화 (02)730-4488 제2937호 토

"출가대중 수준 높여야 1000일 결사 성공한다"

입재 500일 · 결사 2주년 토론회서 제기

지난해 3월28일 진제 종정예하의 정진등(燈) 점등으로 입재한 생명결사 1000일 정진이 반환점인 500일을 맞아 지난 12일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가운데 "결사 3년을 맞한다" 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결사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반드시 지속해 추진해야 할 과업"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12일 '결사 2년을 맞이한 법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원개는 있지만 결사는 지속해 추진해야 할 과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재호 기자

발제자들은 지난해 4월 결사가 대중과 사원에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결사를 전개함에는 사실 하나만으로 높은 장수를 했다. 제보고부사 지지사 주지 휴선스님은 "결사를 선언하고 3년간 이어지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휴선스님은 출가대중의 지장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스님은 "지정과 제신의 결사의 초점은 출가대중인데 현재 1만명의 출가자의 평균 수준을 보면 우리 사회의 평균보다 떨어진다"며 "대중이 관심 없는 상황에서 결사본부가 이만큼 활동해왔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휴선스님은 스님들의 지장을 키우는데 결사의 방향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출가재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구성원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실사장 소임부터도 결사를 통해 해결할 과제라고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결사를 위한 이념적 기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재경 동방불교대학 교수는 "결사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담마(Dharma)적 근거와 시대적 대중적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처님이 진정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의 공부라고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신해기관 교역자 일연적 원칙등 등 점등식을 개최하고 "제보고 부사 지지사 주지 휴선스님은 "결사를 선언하고 3년간 이어지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휴선스님은 출가대중의 지장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스님은 "지정과 제신의 결사의 초점은 출가대중인데 현재 1만명의 출가자의 평균 수준을 보면 우리 사회의 평균보다 떨어진다"며 "대중이 관심 없는 상황에서 결사본부가 이만큼 활동해왔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휴선스님은 스님들의 지장을 키우는데 결사의 방향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출가재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구성원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실사장 소임부터도 결사를 통해 해결할 과제라고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결사를 위한 이념적 기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재경 동방불교대학 교수는 "결사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담마(Dharma)적 근거와 시대적 대중적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처님이 진정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의 공부라고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앞으로 500일 주체도 여러분"

총무원장 자승스님 12일 기념식서 강조

조계종 자승과 제시결사중추진본부(총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선불문화공간3층에서 기념식을 열고 1000일 정진의 지속력이 동참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자 일연적 종무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결사는 인류의 염원을 받자 일고 인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며 현 명한 명이 주체가 돼 정성을 다해야 한다"며 "남은 500일간 종무원과 불자가 주체가 돼 자발적인 마음을 모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넓리 알려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생명결사 1000일 정진 운영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김하영 기자 hakim@bulgyo.com

2013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연드테에서 열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왼쪽 다섯 번째)과 각 부문 수상자들이 시상을 함께 했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님을 찾고 있다"

'선린·상조' 만해축전 평화·실천·문예부문 만해대상 시상식 비롯

100인 시선집 완간 초중고 백일장 등 세계적 축제 마끝이

"세상에 나온 이 / 어찌 살아야 하나 / 살은 백년에 마치지 못해도 / 할 거는 없어 천년을 흐르고 - 만해가 쓰던 되어 삶년이나 / 간비고도 / 쌓불은 오래려 더 깊었네-- 불학이 건트여 / 나이러면/ 단비가 풀꽃에 닢이러면/ 당신의 고운님은 어느 분 / 어디시요---" (만해축전 축시, 방민호 시인)

올해로 17회를 맞은 만해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연드테에서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했다.

'선린·상조' 를 내걸고, 만해사상 실천선양회와 동국대학교 등이 공동 주최한 만해축전의 메인행사로 열린 만해대상 수상자는 평화부문에 타키사 시상이며 평화운동가인 베틀다 클렌, 김상수 대한성공회 주교, 그리고 1950년 창립해 세계를 순회하며 불교의 평화사상을 전파고 있는 세계불교도우리연가 선정했다.

또 실천부문에 미얀마의 원로시인인 다공따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임명조씨, 모로코의 문학비평가인 엠다리엠 엘 알랑이 수상의 영예를 앉았다. 문예대상은 독일의 소설가 엘고울레, 러시아 시인인 콘스탄틴 케드로프, 국악인 안숙선 씨가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어를 통해 "만해스님이 그토록 외고자 했던 님은 부처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며, 살아있는 조국과 빼앗긴 자유였다. 이념의 갈등이 지난 지금 세계는 종교와 분쟁, 빈부와 세대의 갈등이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기에 현대 사회는 새로운 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만 결하 한 걸음 나아가는 실천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수상자들이 바로 그런 물줄기를 만들어 가는 분"이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회문은 강원도지사는 대회사에서 "전 세계인이 마음을 열고 서로 돕는 이웃이 되는 것은 인류회고의 꿔치다. 선린과 상조라는 주제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며 만해대상 수상자와 대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올해 만해축전은 인제인터넷신문사가 주관한 학술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학생 시낭송대회, 고교생 백일장 등 지난 13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11일 오후에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시인 100명의 명시선을 완간한 것을 기념하는 시낭송회가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이어 12일에는 인제 다목적구장에서 개이벤트 대회를 개최하고, 만해마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13일에는 문학관시선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남의 정책 연구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제=신주식 기자 jsjm@bulgyo.com

총무원장 후보추대위 갈마총 구성

불교광장-위원장 현학스님

조계종 회대 종책모임 '불교광장' 의 제3대 총무원장 후보추대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원학스님을 비롯해 법안스님, 제원스님, 성월스님, 혜인스님, 법해스님과 동해스님(선원) 도일스님(율원) 계환스님(여가.1320) 등이 참여하고 있다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해 때마다 수시로 의의를 열어 검증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불교광장은 오는 26일 3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후보자 추천을 마감한다. 9월이후까지 후보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일부 외원 자격과 관련해 대면인 덕분스님은 "법규위원이나 재심조계위원 등이 참여는 해제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 위반 관련 사태에 대해서도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논의 정도이고, 종하대회도 다른 후보자가 추천될 제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emsis0@bulgyo.com

효 善

불교신문 법보시캠페인

이래공 이웃과 포교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냈시다

1구좌 5,000원

불교신문 법보시는
포교나눔 도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합니다.

포교의 손끝이 닿지 못하는 이라공 이웃과 포교현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신문 법보시 꾸러미' 를 보시합니다. 비록 한 장씩 신문이지만 포교사 한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현장이 생이면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포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서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금이 한 소중은 생 보시이며 자기 자신과 주대를 위한 선 업을 맺는 일입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참여는 나 혼자가 아니라 대중에 부처님 법을 전달 할 수 있는 한마음을 주는 일입니다. 나눔의 기쁨에 많은 동참 당부드립니다.

문자기재사항 (02) 730-4488
문 자 건 송 (010-4157-4406)

제3회 전국금강경 강송대회

'보살사상 실천 근본도량' 금강선원이 불교신문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의 정독을 솔바로 이해하고 덮어 알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3년 11월 16일(토) 09:00~17:00
■ 장 소 : 한라기념탑광(서울 강남구 자곡동)
■ 공시대상 : 재가불자, 학생
■ 전 형 료 : 일반 1만원, 학생 무료(학생증 사본 첨부)
■ 구비서류 : 소정양식 지원서, 우편 접수 시 지원서에 사진(3×4)1매 부착, 전형료(입금 후 접수증빙), 신청한행 : 100-028-878368(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금강선원)
지원서 다운로드 : 한국기념탑대불교 홈페이지(www.tanheo.org)
■ 접수기간 : 2013년 9월 (일)일~ 9월 30일(월) ※수행체험일 포함 : A4 2장, 신청서 뒤에 첨부
■ 접 수 처 : 금강선원 사무처(서울 강남구 개포동 186-3)
Tel : (02)445-8484 Fax : 445-8043 E-mail : gangsong-dh@hanmail.net
대상지정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 1000만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부문별 우수상(불기, 암송, 이해도, 해행수기), 학생상
※지세한 사항은 한하기념박물관 홈페이지(www.tanheo.org)참조